

〒812 福岡市博多区大博町13-22
TEL 092-271-2126 番

慶惠重牧師委任式挙行

總會 女牧師 第一号

女性牧師 第一号인 慶惠重	會信徒가 參席한 가운데 日
牧師의 委任式이 十月九日(日)	本合同基督教品川教會堂에서 盛
午後四時、二百余名の 韓日教	大히 舉行되었다。臨時堂會長



委任式에서 축도하는 慶惠重牧師

李大京牧師(船橋教會)의 司
會로 進行된 委任式은 李永
欽長老의 기도, 合同品川教會
聖歌隊의 讚揚이 있은후 李
仁夏牧師의 說教「마가10장35
45절 女從」가 있었다.

이어서 地方會長の 司式에
래 委任받은 應重忠牧師에 대
한 誓約이 있은후 品川教會
의 委任牧師된을 宣布했다.
委任받은 牧師에게 金君植牧
師(橫浜教會)가, 信徒에게는
吳京世長老(東京教會)가 忠
誠된 牧者가 되기를 바라는
勸勉이 있었다. 이어서 歷史的
인 女性第一號牧師의 委任代
을 빛내기 위하여 總會를代
表하여 黃義生總會長의 祝辭
가 있었다.

여성으로서 처음牧師가
우리의 敎團에 誕生한것은 하나님
의 크신 經육가운데 된것이
며 同役者와함께 기뻐하며
으로의 牧會生活에 열매를만들

이 맺기 바란다. 했으니까
 地方會를 대표하여 吳允元
 老牧師(東京敎會)의 祝辭와
 合同品川敎會의 佐伯洋一郎牧
 師 美長老敎會를 대표하여康
 恩弘牧師의 祝辭가 있었다.

敎會를 대표하여 崔金粉牧
 師의 인사가 있은후 委任받은
 慶惠重牧師의 祝辭로 委任札
 扨를 마치고 축하잔치를 가
 졌다.

朴永昌牧師委任式

大垣教会の宿願達成

前서울明知大學 校牧宰長이 며 大韓南加州教會(로스앤젤 스)의 担任牧師였던 朴永昌 牧師의 委任式이 關西地方會 와 中部地方會의 牧師、長老、 信徒들의 多數參席下에 지난 九月十八日午後三時에 大垣教 會에서 盛大히 열렸다.	세자가 受은후 同總會長의主 宰로 委任牧師의 誓約 및 宣 布가 있었다. 이어 浜松教會 의 鄭煥九牧師의 委任牧師에 게 勸勉, 中部地方會副會長金 光洙長老의 敎友에게 주는勸 勉이 있은後 大垣教會로써委 任牧師 内外에게 記念品贈呈
--	---

을 받는다'라는	同委任式은	李海春牧師의	中郡地方會長인	이 있었고	이어서	京都會會
		會合讚頌三四章齊唱、岡崎教會 鄭永吉牧師의 祈禱와		兪錫潁長老의 總會를 代表한		
		聖徒奉誦에는(요한복음...二三)二五 豐福教會의 李聖雨牧師 說教에는 在日大韓基督		會 BOWMAN牧師와 大垣同盟教會FURMAN牧師		
		敎總會長(名古屋教會担任)인		의 祝辭가 있었고 祝文 祝電의 披露가 있은뒤		
		黃義生牧師의 『하나님께 信任		반는 朴牧師의 答辭와 祝禱		
		閉會했다.		로 恩惠스러운 霧團氣속에서		

式이 끝난 뒤 祝賀愛餐會가
있은후 同日午後六時頃에 閉
會됐다.

西南・関 婦人公

西南地方會婦人会
西南地方會婦人会(會長 辛
聖連執事)의 第29回定期大會
가 지난 九月六日 午後十時
三十分부터 下関教會堂에서開
催되었다.

本사아의 歷史의 現實에 立脚
해서 福音을 선교해 달라는要
請과 祝辭를 하였다. 이어서
小杉牧師의 答辭가 있었다.
小杉牧師는 많은 內빈들이와
주신을 感謝하면서 「總念」
에서 함께 일함을 허락된자
로서 앞으로 특히 「하나님의
뜻 섭리」에 의한 歷史理解
란 觀點에서 日本人과 韓國
人的 具體의 共勞와 連帶의 길
을 摸索하고 싶다는 담사를
述べ었다.

西成教会創立
60周年記念式典열려
小杉尅次牧師의 副牧師委任式도

지난 九月十一日(主日)午後三時半부터 大阪西成教會는 一九二三年 처음으로 創立된同

敎會의 六〇周年을 祝賀하
 禮拜를 가졌고 同時에 八月
 一日부터 同敎會에서 金元治
 牧師와 함께 牧會에 復歸한
 小杉牧師의 副牧就任式을 舉
 行하였다. 關西地方에 所屬한
 많은 敎友들을 비롯하여 「日
 帝」時代와 韓國의 解放直後
 西成敎會에 協力해 준 日本三
 리스칭들이 합쳐 三三〇名가
 같이 모이는 가운데 金元治
 牧師司式으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 行事를 마쳤다.

第一部 記念禮拜順序 가운데
 「大阪西成敎會六〇周年略史」
 를 紹介하는 시간도 있었는
 데 역시西成敎會에서 講道師
 로서 牧會에 從事해 본 일
 이 있던 大阪築港敎會雜曾男
 牧師가 이 일을 맡아 六〇
 年에 걸친 西成敎會의 오늘
 까지의 발전을 感銘하여 說
 明하여 주었다. 「日帝」末期
 의 社会的・政治的混亂을 겪
 어 해방을 맞이 한 西成敎

會가 聖徒들의 祈와 禱으로
 산 衿堂堂土地 五〇〇坪을
 本當局에게 沒收당한 後 一
 九四五年八月以後 그 再出
 을 하여야 했었다는 역사적
 事實은 마음의 아픔없이 못
 들는 이야기였다. 同時에 앞
 으로의 課題로서 西成敎會의
 오늘날까지의 敎會歷史를 事實
 에 따라 整理하여야 할 일이
 있는 줄 안다. 京都敎會楊炳春
 牧師도 이의 重要性을 強調했다
 牧師牧師의 就任式에 있어
 是는 金得三關西地方會副會長
 司式이라 金德成大阪敎會牧師
 에 의한 勸勉의 말 또한 堺敎
 會尹宗銀牧師와 京都敎會 齋
 錫淸長老 및 全國婦人連合會長
 戊黃長老의 祝賀의 말이었
 었다. 特히 齋長老는 小牧收
 師가 日本人敎役者로서 “재일
 대한 기독교” 총회안에 들어가
 일하는데 꼭 마음에 담아 두
 어야 할 여러가지 중요한 점
 을 指摘하면서 韓國과 日

이 記念式典에서는 아을리
西成敎會를 오랫동안 섬겨
온 十五名의 名譽 및 隱退執
事들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서「感謝牌贈呈」式이 舉行되
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西
成敎會의 오늘날의 歷史를
물소 證하는 聖徒들이다.
「렇게 함으로써 西成敎會는
六十一年의 첫걸음을 하나님
의 돌보심과 많은 敎友들의
뜻찬 祝福 가운데 始作하였다.
로 나누어 각五名씩 十名의

西南地方의 七個敎會中 沖
繩敎會를 除外한 六敎會에서
四十五의 會員이 참석하였다
開會礼拜를 通해 婦女部長인
李聖柱牧師의 賢淑한 女人
(장31:10-31) 이란 설교로
은혜를 나누었다.
各部, 各敎會婦人會報告와新
案件 討議를 마친후 弁論大
會를 가졌다. 題目은 敎會成
長은 믿음이나?였다. 두편으

岐阜教会30周年
特別記念礼拝開く
教会、着実に発展

岐卓教会は去る九月十一日午後三時半から、創立三十周年祝賀礼拝を盛大に行った。当日は雨が強く降り、むし暑い日であつたにもかかわらず、名古屋をはじめ、中部地方諸教会の牧師・信徒多数がかけつけようこびを分ちあつた。記念礼拝の説教は、総会総務の金君植牧師がマルコ福音書四章十一節から二〇節の御言をもつて「教会の使命」と題して語られた。金総務は、説教の中で、今日の教会はまさに嵐の中で沈みかけている小舟であり、そういう状況の中



岐阜教会30周年記念集会

で「しっかりせよ」というイエスの御言を聞かされる。教会はこのイエスの御言によって、自分自身だけがしっかりするのではなく、地域・社会・世界をもどんな嵐の中でもしっかりさせる務めのあることを強調した。

来賓祝辞の先頭に立った黄義生総会長は、牧師・信徒が一致団結して主の要望に答える教会になってほしいと訴えた。

日本基督教団を代表してこれま岐東教会と関係の深い蘇原教

会の松村重雄牧師がおこなった松村牧師は、今回同教団の宣教協約締結を機に、草の根運動を地域で展開したいの述べた。民団県本部団長の金龍基氏はあいさつの中で、教会に対する大きな期待を述べた。団長として政治の世界に深く介入しなければならぬ事が多い。最近の大韓航空機撃墜事件、南北統一問題、民族差別問題等をもみても、人間の性のかんがいが、罪悪性を身にしみて感じざるを得ない。

西南・関東地方会
婦人会定期大会

의 所見을 열심히 밝혔다.

ることは間違いない。
ひき続き、書記部からの報告があった後、各教会の現況が報告された。
総会初の婦人牧師となった慶恵重牧師は、閉会礼拝の中で次のように語った。真に成熟した婦人は逆境にあつても動揺しない。これは自分の所属する教会に忠実に仕えることから可能となる。教会をしよつちゅう変えたり、あの牧師、この牧師へと走つたりしないことである。教会婦人は常に飛躍を願い、小さいものの中にひそむ大切なものを見逃さぬ努力の必要性を語られ、聞くものに大きな感銘を与えられた。
最後に在韓被爆者の映画を作られた作家の朴秀靨女史が急提この会に見えられ、現在もおな悲慘な状態にある在韓被爆者の現状を訴えられた。

岐阜教会は、一九五三年三月今は亡き金柄淇長宅を開放してスタートし、当時は大垣教会の朴命俊牧師が約三年間兼任された。一九六〇年に、韓在秀牧師が赴任して伝道所が教会に昇格し、教勢も伸び、教会堂も現在地に移り新会堂を建てた。現在まで金承俊、申鉉錫牧師がこの地で伝道の苦闘を続けた。三年間無牧の後、一九七九年に、李海春牧師が赴任し、精力的な訪問伝道、民族教育活動を通じて教勢も飛躍的に伸び、教会の奉仕、信仰訓練もゆきとどき、その成長にはめざましいものがある。金再龍、金光在長老をはじめ教会員の支えも大き

韓国への引越しは
AKATSUKI
☎(03)501-1487
戸口から↔戸口へ
創業15年

暁引越しセンター(株)

カナダ製高級毛皮輸入販売
ヨーロッパ製有名ブランドバック販売
ドイツ最高級羽毛フトン輸入販売

**有限会社 ハーン・トレ
ーディング・カンパニー**

代表取締役 李 博
(横浜教会々員)

〒236 横浜市金沢区並木2丁目7-6-402
TEL (045) 785-5140

不動産業務全般

免許番号・愛知県知事③第5426番

太栄企業株式会社

代表取締役 金 光 洙
(名古屋教会 長老)

事務所 名古屋市熱田区川並町2番21号
(名古屋市中央卸売市場入口南側大栄ビル)
電話 052(682)1177(代)

宅 名古屋市千種区御影町2-55-5
電話 052(711)4398

김경

정치사회적 한국 역사 현실
속에 기독교는 三民主義
를 확립시켜야 함

미혼주의자가 꼭 기독교의 산물인 아님지라도 미혼주의의 정신은 바로 기독교의 정신적 풍토와 계도를 같이한다. 참다운 자유·평등·인권·박애가 무엇인지를 기독교는 가르쳤고, 또 그것을 위해 싸웠것이다. 형식적·외주와 현실 대인사회가 합리화하는권 되고 남북한 정치사회의 이 데올로기는 종합적양을 향해 양편 모두 자신을 허심탄회하게 비우고 수정하고 조정하는 자기수술과 조정의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 한국기독교는 바로 그 민족적 자수성가를 돕는 허심탄회한인술(仁術)을 베푸는 의사가 될지언정 진정 통민과 화해경제·사회·문화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으로서 성문화시키려는 사회율리, 사회정의의 실현의지이다. 그것은 예언자 정신의 오늘들의 구현인이다.

리의 중심이 된다는 일체의 권위주의적 정치사회를 그 근처에서 비난하자니 버리는 기독교의 비판적 힘없는 인간을 인양하는 우상으로 우리 위에 군림할 것이다. 기독교는 한국문화가 본래 거기에 속한 문화부족에 역사적식을 불어넣은 유인한 종이다.

의 역기능적 방해자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감성주의적 북한선교의 심자근적 열정주의는 배해무익하다. 한국 기독교 자신이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에 자신을 매몰시키고 기독교 복음적 삶의 양식을 그 것과 일치시키는 것은 교회 제 2 바벨론 포로에 불과

교 제 2 세기를 맞는 한국 기독교의 첫 번째 과제이다. 이것은 한국 기독교의 재일한국적 과제일 뿐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제 3 세계의 일반적 공통과제이기도 하다. 과거에서 삶의 원형적 모델을 찾고 과거로 돌아가려는 근원사회에 기초한 모든 민족주의적 정치철학은 이

기독교는 민족주의나 국가주의의 좁은 한계안에 갇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구체적인 민족의 절실한 현실문제들을 외면하거나 떠나서 인간 삶을 성문화하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오늘 한국의 남부한 민족이 받는 모든 인간적 제약과 억압과 긴장과 민족적 역량의 낭비는 부단히 극복되어야 할 과하다. 남북한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 기독교는 남한사회가 참된 개방성, 개인의 인격의 존엄성, 자유의 확장을 기본 신념으로 하고 스스로 욕망 충족의 본능을 절제하고 전 세계 동양인들이 함께 땅과 집 을 나누어 가짐이 모두가 행하여져야 하는 위주(我主)적 자기배려적 정치를 넘어서는 것이다.

미래의 희망과 예견에서 오는 실현된 삶의 모델들을 빛과 섬세속에서 구하며 미래로 전진하려는 기대식(期待式)에 기초한 모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적 정치철학은 인간성을 억압상태와 현상 유지에 그치는 데서 불리 혼돈되어 아직

현실에서 온다. 한국 기독교는 어느 특정한 정치 이데올로기나 더우기 특정 정권에 어용종교로서 불려다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 기독교가 한국인에게 구제적으로 자유를 선사하고 고사하는 것이요 개성과 창의

복한 인간을 심어준 것을 가르치야 하며, 북한사회로 하여금 인간은 땀만을 흘려주며 남의 믿음에 의존하는 것이요 자유를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사는 것이요

로 인간을 괴상한다. 아브라함의 종교, 마울의 기독교, 후자의 믿음이요 한 가지 믿는 것이요 한국에게 신인유사물을

현도지 아니한 미래의 세

물로 귀야 한다.

院修士課程(博士課程前期)を修了している者及びそれと同程度の学力を有する者

(4) 必要な提出書類 ① 所定の願書 ② 履歷書 ③ 留学志望の動機と研究計画 ④ 学部・学科・長たは所属教区長による教職または信託である証明書 ⑥ 大学院修了証明書 ⑦ 学部および大学院成績証明書 ⑧ 健康診断書 ⑨ 受験料 五〇〇〇円 ⑩ 既発表の学術論文等のある者はその現物またはコピー但し

②③は和文及び独文、④⑤⑥⑦⑧は和文(ドイツ教会への

一五三八九

(6) 予備選考 ① 日時 一九八四年一月六日(金)午後二時より

試験 会場 東京(NCC)

内容 独語による面接試験の他、筆記試験が課せられる。詳細は応募者に通知する。

(7) 合否決定 予備選考試験の結果は郵便により応募者に通知する。最終的合否の決定は、予備選考試験合格者を対象として、ドイツにおける引受機関が行なう。その期間は従来例から見て五月末ごろと御承知おきいただきたい。

〒490-11 愛知県海部郡大治町大字砂子字村東2336
電話 名古屋〈052〉431-3156(代)